경북매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 줄잇는다

전준혁기자 | 승인 2020.08.26 20:17

> (주)에이엔폴리 등 8개사
> 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 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2024년까지 451억 투자키로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기업 투자유치가 순항하고 있다. 특히, 포항융압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IT·첨단신소재 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26일 포항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로 8개의 기업은 오는 2024년까지 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천848㎡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포항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총 8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8개사를 살펴보면 포스텍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주)에이엔폴리(대표 노상철)·(주)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주)바이오컴(대표 류봉열)이 있고, 포항TP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주)이너센서(대표 강문식)·(주)이브이에스(대표 이득진)·(주)휴비즈아이씨티(대표 심희택)가 있다. 이 외에도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주)아이언박스(대표 오상택)가 있으며, 이들 7개사를 제외한 (주)화이바이오메드(대표 한세광)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품 양산 또는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케팅과 기업의 자금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다"면서 "그러나 포항시의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포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기업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타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앞서 지난 6월 15일 경북도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한미사이언스(주)와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46만㎡(약 45만평) 규모에 바이오, 에너지, 나노, 주거, 글로벌 비즈니스의 5

가지 혁신성장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프리미엄급 복합자족신도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준혁기자